

# TV의 젠더 역사쓰기의 가능성과 한계: 역사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김훈순\* · 김숙\*\*

이 연구는 KBS에서 방영되었던 TV 역사다큐멘터리인 <역사스페셜>과 <한국사 傳>을 대상으로 TV의 역사쓰기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이야기구조와 담화를 중심으로 서사분석하였다. 역사적 사실을 선택과 배제를 통하여 재구성하는 TV의 역사쓰기가 대중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배적인 역사인식에 반하는 역사적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분석결과 두 프로그램 모두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전복적인 역사쓰기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야기구조에 있어서는 첫째, 여성의 역사를 쓰는 데도 불구하고 남성의 영웅 서사 전개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공적 인물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으로서의 여성성을 없애고 탈개인화시키고 있다. 둘째, 두 여성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앞서 전제하고 있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남성적 시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셋째, 정치적인 여성 인물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남녀 간의 애정관계에 주목하고 있어 여성의 공적 인물화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두 프로그램의 담화방식 역시 역사적 상상력을 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의 역사적 해석을 더욱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디오에서 실제의 모습으로 전지적 시각으로 역사를 전달하는 서술자는 담론적 위계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의미 규정자였다. 영상의 경우 특히 <한국사 傳>에서 부족한 영상을 메우기 위해 제작진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극화된 재연 장면에 의존하는 방식은 담화가 오히려 가부장적 서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전복적 해석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주제어: 역사쓰기, TV 다큐멘터리, 대안적 해석, 여성의 공적 인물화

## 1. 들어가는 말

최근 다큐멘터리가 TV의 주요 장르로 부각되고 있다. 주로 자연이나 인류 역사를 소재로 하는 다큐멘터리가 인기의 중심에 있지만<sup>1)</sup> 넓은 시각에서 보면 TV라는 영상매체가 표현하는 사실(fact)에 대해 시청자가 주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다큐멘터리는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과 같은 장르보다 공적인 관심(public affairs)을 보인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유익하며, 영향력이 큰 장르로 인식되기 때문에(원용진, 1999) 방송사 차원에서도 채널의 공공성 이미지 강화를 위한 장르로 선호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장르와 비교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 맞게 효율적으로 변환하기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정희경 · 강만석 · 김경환, 2008).

하지만 TV다큐멘터리가 실제 세계에 대해 선택적으로 사실을 기록하거나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시청자에게 리얼리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효용성에 앞서 사회문화적인 시각에서 다큐멘터리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 홍보 영상학부 교수 (hoonsoon@ewha.ac.kr)

\*\* 이화여자대학교 언론 홍보 영상 대학원 박사과정 (dashim@hanmail.net)

1) 2007년 KBS의 <차마고도>가 좋은 성과를 보인 이래로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가지는 방송 콘텐츠로서의 가치 또한 높아졌다. 2010년에는 MBC가 창사 특집으로 기획한 <아마존의 눈물>이 시청률 17.9%, 점유율 31.7%를 기록하고, 극장 영화로 진출하면서 OSMU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열었다.

의 ‘사실’ 창조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TV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의 사회구성원의 분열된 기억을 통합하고 과거의 사건과 상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Hardt, 1995)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담론적 실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V가 역사를 재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역사드라마는 상상적(imaginative)인 역사 서술로 작가적 상상력에 의존하지만(주창윤, 2006), 역사다큐멘터리는 사실과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를 쓴다. 따라서 TV 역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있어 과거의 자료 혹은 기록 필름이 얼마나 접근 가능하고 프로그램의 구성방식을 어떻게 가져가며, 전문가나 증인의 목소리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해설의 방향과 수준은 어떻게 정할지 등이 매우 중요한 선택사항으로 떠오른다. 특히 지난 사실들을 어떻게, 어떠한 시각에서, 어떠한 정치적 관점을 갖고 볼 것인가라는 현재적 해석(interpretation)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론적 사안으로 등장한다.

에드워드 카(Carr, 1990)는 역사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재구성되는 것으로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였다. TV 역시 역사를 선택하여 영상과 이야기를 가지고 배열함으로써 과거를 현재화하는 재현의 과정을 가진다(김훈순, 2000).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친숙한 텔레비전은 우리 사회와 문화가 공유하는 지배적 가치체계를 내재하고 유포하는 대표적인 대중매체이다. 이러한 매체적 특성과 사실에 근거하여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는 다큐멘터리의 장르적 관습이 만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은폐시키곤 한다. 특히 TV 다큐멘터리는 픽션보다도 더 사실적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어떻게 사실을 구성하고 보여주는지에 따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TV 다큐멘터리의 역사쓰기 방식과 그 의미를 검토하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TV의 표현 양식이 더욱 풍부해지면서 다큐멘터리 장르도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역사적 사실의 재현에 충실하던 TV역사다큐멘터리가 사실과 허구에 의도적인 간극을 두는 재현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박인규, 2006). 기존의 다큐멘터리는 전지적 내레이터의 해설,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일률적인 구도의 인터뷰, 제작자를 드러내지 않는 현장 촬영, 직접적인 인용으로 기능하는 자료화면, 설명적인 그래픽 등의 전략적 수단을 통해 제작자들이 주장하는 진실을 주장하고자 하였다(박인규, 2006; 서현석, 2004). 그러나 제작 환경이 변화하고 텍스트의 표현 양식 수위에 대한 시청자 수용의 폭이 확대되면서 다큐멘터리 장르 역시 다양한 표현 양식을 통한 담화 방식을 찾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TV 다큐멘터리의 역사기술과 의미생산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담화방식으로서 표현양식에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KBS에서 방영되었던 TV 역사다큐멘터리인 <역사스페셜>과 <한국사 傳>을 대상으로 TV의 역사쓰기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이야기구조와 담화를 중심으로 서사를 분석한다. 나아가 대중매체로서 TV가 기존의 지배적 역사인식에 반하는 대안적인 역사해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TV 역사쓰기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 2. TV 역사 다큐멘터리와 집단적 기억의 재생산

### 1) TV의 역사적 사건의 선택과 재현

역사가 현재의 시각으로 다시 쓰여질 때 필연적으로 선택과 재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 중 역사를 쓰는 사람에 의해 선택된 파편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현재의 관점에서 역사가 선택될 때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실(fact)을 넘어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집단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산물로서 기능한다. 이때 역사를 쓰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개입되기 때문에 역사쓰기가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재구성하기 위한 치열한 이데올로기의 투쟁의 장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박진우, 2009; 주창윤, 2006).

역사쓰기는 생산자가 선택한 표현 방법에 따라 인쇄매체, 영상매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매체의 특성에 따라 역사적 소재도 달라지고 표현방식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영상매체인 TV가 역사를 쓰는 방식은 과거와 현재의 간극을 메우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적 소재를 바탕으로 작가적 상상력 즉, 허구(fiction)로 스토리를 채우는 드라마와 의식적으로 작가적 상상력을 배제하고 진실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선택한 과거를 보여주고자 하는 다큐멘터리이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쓰는 역사다큐멘터리가 과거의 역사 자체를 온전하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역사다큐멘터리는 과거 사실을 재현적 구성을 통해서 충실히 담아내고자 하지만, 재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선택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때 특정한 관점과 사관에 기초한 역사에 대한 재정의 작업이 덧붙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김균·전규찬, 2003).

이와 같이 특정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인 TV의 역사쓰기는 복잡한 생산 메커니즘을 지닌 매체의 속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일반적으로 미디어가 역사를 쓸 때는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선택의 폭이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TV 방송사의 제작 메커니즘은 다양한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역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TV 프로그램의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제작자의 사상, 사회문화적 특성, 정치적 상황 그리고 제작비 등이 있다(Patricia, 1982). 특히 TV 다큐멘터리는 독립적으로 제작되는 영화다큐멘터리와 달리 방송조직과 제도 아래 제작되기 때문에 재원(financial resource)이나 유통구조가 안정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일정 수준의 성과를 담보하는 소재를 선택하고 편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내용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적 관심을 끄는 뉴스가치가 있는 주제, 역사적 주제, 옛 필름을 편집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주제, 인간적인 흥미 등 비정치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특히 과거를 다루거나 인간적인 흥미를 다루는 경우에는 개인사를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김훈순, 2000). TV 역사다큐멘터리 역시 역사의 사료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수많은 기록들 중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소재들이 선택되고 영상에 의해 재배열된다. 따라서 TV 역사다큐멘터리는 현 사회의 권력구조와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가변적일 수밖에 없고, 재현되는 집단적 기억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히 변화된다(윤태진, 2000). 더불어 TV에 의해 선택되어 재배열된 역사는 시청자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며,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 2) TV 역사다큐멘터리의 서사성과 이미지

TV 역사다큐멘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진실성을 가지고 객관적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역사적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제작진에 의해 선택되고 배열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서사성을 내포하고 있다(Nichols, 1988). 현재적 관점에서 역사를 쓰기 위해 제작진은 흠어진 과거의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이를 재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서사를 필요로 한다(Fisher, 1989; Ricoeur, 1981).

영상매체인 TV의 역사재현에는 서사적 틀뿐만 아니라 이미지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미지는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역사적 순간을 재현하여 고정시킴으로써 과거를 기억하도록 돕는다(Zelizer, 2004). 켈리저에 따르면 이미지는 과거 사건의 단편들을 떼어 맞추어 보여주는 평범한 거울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기술과 또 다른 상징적 장치, 주어진 담론 틀과 상호작용하여 과거의 순간을 틀 지을 뿐 아니라 때로는 굴절시키기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한 언어적 재현과 달리 이미지는 대단히 자세하게 사건의 순간을 포착할 뿐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는 모방능력(mimetic capacity)을 가지고 있는 데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 이러한 능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TV 역사다큐멘터리는 서사와 이미지를 토대로 역사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역사다큐멘터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방식은 이미지인 기록필름(file footage), 해설자의 직접 말하기(direct address), 증인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등이다. 기록 필름과 같은 객관적 자료는 다큐멘터리가 지향하는 ‘현실지향성(reality orientation)’과 논리, 합리성, 인과관계에 기초한 서사구조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다큐멘터리가 재현하는 세계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Nichols, 1991). 또한 역사와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나 증인의 인터뷰는 시청자들에게 제작진이 선택한 역사를 직접화법으로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재구성한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신명희 · 김창숙, 2006; 윤태진, 2000; Caughie, 1981; Silverstone, 1987).

그러나 보다 강력한 서사를 이끌고 있는 것은 해설자라고 할 수 있다. 기록필름이나 인터뷰가 제작진이 선택하여 재구성한 역사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담보한다면 TV 역사다큐멘터리에서 해설자는 주요 화자로서 생산자의 주체적 담론을 전달하고 강조하여 다큐멘터리의 실질적 화자이자 집단적 기억을 생산하는 결정적 창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강승묵, 2007).

## 3) 대안적 역사해석의 가능성

TV의 프로그램 생산 방식을 비롯하여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표현 방식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TV가 재현해내는 역사에 대한 학자들의 입장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는 끊임없이 과거의 역사로부터 소재를 가져와 다양한 장르 속에서 재현해내고 있다. 대중이 공유하는 역사지식은 시청자에게 쉽게 다가가는데 매우 유리한 소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의 역사기술 방식으로 주목받는 신문화사적 접근은 역사를 기술하는 작업이 더 이상 역사가라는 전문집단의 특권적 글쓰기에 제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맥락에서 대중매체의

역사쓰기를 역사기술과 역사의 의미화 작업의 한 실천으로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신문화시는 지배계층 중심의 역사 접근 방식인 정치사나 반대로 소외 계층 및 민중 중심의 접근 방식인 사회사와는 차별화된다. 신문화시는 사회경제사의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계승하는 한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조한욱, 2000, p.12)이라는 전제로 역사인식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접근은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역사적 사료를 두껍게 읽기, 다르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 깨뜨리기 등의 방법에 의존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정형화된 역사의식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대안적으로 읽어내려는 시도를 한다(김훈순, 2000, pp.12~15).

다른 한편 사진의 발명 이래 역사적 기억은 점점 더 사진이나 기록필름이나 비디오 자료 같은 영상자료에 의존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영상미디어가 역사적 집단기억의 형성에 관여하는 역할은 크다. 역사기술에서 이미지 역할에 관심을 갖는 많은 연구자들은 이미지의 모방능력이 역사에서 발생하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공적 사건에 대해 확신이 들도록 할 뿐 아니라 과거 사건에 관한 집단 기억을 규제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디어의 영상재현방식은 단순하고 그럴듯한 내러티브로 포장될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의 측면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기존의 헤게모니에 반하는 대안적 기억까지 생산할 잠재력을 갖는다(Choi, 2009).

반면에 한국전쟁의 기록을 다룬 PBS의 역사다큐멘터리 분석을 통해 기억을 만드는 데 있어 영상구조와 내러티브 구조의 관계를 분석한 최수희(Choi, 2009)는 매스미디어가 대안적 집단기억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기보다는 공적인 내러티브에 반하는 시청자의 교섭력을 마비시키는 보수적인 기억장치(*conservative memory vessels*)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미디어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잠재성을 가진 새롭게 찾아낸 기록물을 선택하고 구성함으로써 과거 사건에 대한 지배적인 내러티브를 강화시키거나 단절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역사다큐멘터리의 관습적 형식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시청자가 역사의 뉘앙스와 복잡성을 통해 알 수 있는 전체적인 시각을 형성할 수 없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대안적 집단 기억의 형성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TV 역사다큐멘터리는 기존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서술방식을 해체하는 작업에 일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역사다큐멘터리는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시공간과 인물을 창조하며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해내는 작업의 결과이다. 따라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관습화된 양식을 따라 기존의 해석 틀 속에 넣어 기술할 수도 있는 반면, 지배적 역사인식에 반하는 대안적이고 전복적인 해석을 추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존의 우리 역사는 상당 부분 지배적 이데올로기였던 유교적 논리에 의해 기록되고 쓰여진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남성 중심의 역사가 곧 공적인 역사인 것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반면에 기존 역사 속에서 여성은 자연스럽게 배제되거나 주변화되어 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가 역사 속에 정치적 공적을 남긴 여성 인물을 다룰 경우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틀 내에서 추구하는 여성상과 제작진이 새롭게 해석하려는 인물상이 충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디어가 여성을 재현하는 방식은 비교적 일관적인 것으로, 미디어 속에서 여성이 주로 존재하는 곳은 가정 혹은 가정과 연결된 사적인 영역이며, 여성이 가장 빈번하게 수행하는 임무는 아내나 어머니의 역할이었다. 이에 반해 정치를 포함하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의 모습은 부수적인 것, 혹은 사소한 것으로 제시되거나 체계적으로 주변화 시킨다. 대중매체는 일관되게 여성을 사적인 영역과 연관시키고 공적인 영역에서

의 여성은 비가시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양정혜, 2002; Tuchman, 1978), 전복적인 여성상을 다루는 경우도 인물을 주변화 하여 기존의 균형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괴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김훈순·김미선, 2008). 역사적으로 권력의 상위에 있었던 여성들도 미디어를 통해 이러한 이미지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어진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여성에 대한 담론이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역사 속에서 잊혀졌거나 왜곡된 여성인물들에 대한 발굴과 재조명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역사적 인물로서 여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재조명은 역사다큐멘터리에서 거의 배제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는 남성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을 띠는 역사다큐멘터리가 주로 남성적 권력행사의 핵심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다루기 때문이다.

### 3. 분석 대상 및 분석 방법

#### 1) 분석 대상

일반적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채널의 공공성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장르로 다큐멘터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KBS는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다루는 역사 다큐멘터리를 정규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다. 반면에 MBC나 SBS는 역사적 사건을 특집이나 기획형식으로 다루거나 근현대사를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TV 역사다큐멘터리의 역사쓰기 방식에 주목하는 이 연구는 역사를 재조명<sup>2)</sup>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KBS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던 역사다큐멘터리 <역사스페셜>과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서 역사적 인물에 집중하는 <한국사 傳>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998년 10월 17일부터 2003년 6월 21일까지 방영되었던 <역사스페셜>은 총 214회 방영되었다. 이 중 여성인물을 다룬 경우는 7건이었다. 2007년 6월 16일부터 2008년 10월 25일까지 총 61회 방영되었던 <한국사 傳>은 여성을 소재로 한 경우는 총 12편이었다.

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가운데 기존의 사료를 통해 부정적 여성으로 묘사되어왔던 ‘기황후’와 ‘천추태후’를 각각 다룬 <역사스페셜>의 “미스 고려 기황후 대원제국을 장악하다”(2001. 9. 1)와 <한국사 傳>의 “고려 여걸 천추태후”(2008. 10. 18)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선정하는 이유는 TV의 역사쓰기가 대중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배적인 역사인식에 반하는 역사적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짚어 보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2) 분석 방법

서사는 시공을 초월하여 세상에 대한 인식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다. 앞서 검토하였듯이 역사 다큐멘터리도 역사적 현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는

2) 제작진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건 및 사실, 문화유산 등의 발굴 및 영상복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증, 역사적 인물의 재조명” 등을 제작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기존의 통사보다는 새로운 시각과 방식으로 역사를 다루겠다는 기획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서사형식을 취한다. 서사분석은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수단과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가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밝히는 데 용이한 분석방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서사분석을 통해서 두 TV 역사다큐멘터리의 역사쓰기 방식을 살펴보고, 이러한 역사쓰기 방식을 통해 과연 전복적인 해석을 해내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서사는 ‘누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의미하는 이야기(story)와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는가’라는 서술방식인 담화(discourse)로 구성된다(Chatman, 1978). 이야기 분석은 인물의 유형, 인물간의 관계, 이야기 전개 등을 주 대상으로 이항대립에 주목하는 계열체분석(paradigmatic analysis)과 사건의 전개를 다루는 통합체분석(syntagmatic analysis)으로 이루어진다. 담화분석은 언어 표현방식과 영상 표현방식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언어표현방식은 서술자 유형, 서술모드, 서술자 위계구조, 시점 등이, 영상 표현방식은 미장센, 카메라 기법, 편집 등이 포함될 수 있다(김훈순, 2004). 그러나 프로그램에 따라 담화방식은 다양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도 다를 수밖에 없다. 다음의 역사 다큐멘터리 담화방식은 언어표현방식과 영상의 유형을 중심으로 분석될 것이다.

## 4. TV 다큐멘터리의 역사쓰기

### 1) 이야기 분석

#### (1) 영웅서사 구조

통사에서 주변화된 역사적 여성인물인 ‘기황후’와 ‘천추태후’를 다루는 두 편의 다큐멘터리는 전형적인 서사물의 이야기방식인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영웅을 다루는 서사방식의 이야기전개가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두 역사다큐멘터리의 각각의 이야기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역사스페셜>의 ‘미스 고려 기황후, 대원제국을 장악하다’: 이 다큐멘터리는 기황후가 고려인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한다.<sup>3)</sup> 고려인으로 태어나서 원나라의 황후가 된 역사적 여성인물로 ‘기황후’를 소개하고, 이후 북경의 운거사를 찾아가 화엄당에서 기황후와 관련된 고려인 기구인 ‘자정원’에 대한 기록을 소개한다(기).

역사적 인물로서의 ‘기황후’의 존재를 확인한 후 행주 기씨 종친회관을 찾아가 기황후가 기자후의 막내딸이었으며, 원나라에 공녀로 끌려갔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 당시 원나라에 공녀를 보냈던 역사적 배경을 사료와 함께 제시하고, 아울러 원나라에 공녀와 환관으로 갔던 고려인들의 우수성을 언급하고 있는 사료를 제시한다(승).

3) 역사적으로 기황후가 실제로 고려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 방영 당시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기황후가 고려인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창현(2006)은 기황후가 고려인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미스 고려 기황후, 대원제국을 장악하다’는 학계에서 아직 논쟁 중이거나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이끌어 소개한 것은 역사 왜곡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 기황후의 이야기로 되돌아와 원순제가 대청도에 유배 왔었던 사실과, 고려와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원순제가 고려의 여인 기씨를 총애하자 원순제의 제1황후인 타나시리가 시기하여 채찍으로 때리고 인두로 지지는 등 가학적인 행동을 했음을 이야기한다. 제1황후였던 타나시리가 죽자 원순제는 기씨를 황후로 책봉하고 기씨는 아들을 낳는다. 또한 기황후는 동향사람인 고려인 ‘박불화’를 기용하여 중심세력을 형성한다. 몽골의 국립박물관을 찾아 당시 고려인들의 의복이 몽골복식에 영향을 미치는 등 고려인이 원에 미친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울러 기황후의 정치적 영향력과 세력 또한 강력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전).

그러나 흥건적의 반란으로 원이 멸망하고 기황후는 고려에 되돌아오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는 기황후의 묘를 보여주면서 쓸쓸한 최후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행주 기씨 제감에서는 사후 600년 만에 기황후 영전 봉안식을 거행하며 기황후를 선조로 받든다(결).

다큐멘터리는 기황후의 역사적 평가가 부정적이었던 것은 유교적 봉건주의의 관점에서 쓰여진 사료와 오빠 유기철의 폭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비록 고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기황후 섭정 당시 원의 경제적·정치적 수탈이 매우 적어진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up>4)</sup>

이야기 전개과정에서 고려인의 우월함이나 당시의 풍속을 소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기황후’라는 인물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대기를 다루는 전기적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기황후가 제1황후 타나시리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부분은 전형적인 영웅 서사 구조에서 ‘인물의 시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기황후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여성이자 고려인이며, 타나시리는 남편의 총애를 받고 있는 여성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몽골인으로 묘사하여 두 인물 간의 이항대립을 통해 ‘선’한 인물로서 기황후의 역사적 입지를 다시 쓰고자 시도한다.

---

#### 기황후:타나시리

선:악

고려인:몽골인

지혜로움:시기심 많음

---

한편 자정원이라는 기구를 통해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부분은 ‘영웅적 인물’이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자정원을 이끄는 박학다식한 고려인 환관 박불화는 영웅 기황후의 ‘조력자’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삽입된 기씨 종친회의 기황후 영정봉안식은 ‘영웅이 성공적으로 귀환’하는 닫힌 결말이 된다. 이처럼 ‘미스 고려 기황후, 대원제국을 장악하다’는 기황후의 일대기를 전형적인 영웅 서사구조를 빌어 이야기함으로써 기존에 기황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대신, 새로운 영웅의 긍정적 이미지로 역사적 대중기억을 재생하고자 하는 제작진의 시도를 엿볼 수 있다.

4) 사회자(MC)는 클로징 멘트로 ‘자랑스럽지 못한 역사 한가운데 서 있는 기황후. 그러나 한 개인의 삶으로 볼 때 공녀로 원에 가서 황후까지 된 파란만장한 삶을 산 여인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그동안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지 않았나 한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다.



② <한국사傳>의 ‘고려 여걸 천추태후’: ‘천추태후’ 역시 ‘기황후’와 유사하게 전형적인 영웅 서사구조의 이야기 전개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인물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한국사傳>의 특성상 역사 일반을 소재로 하는 <역사스페셜>보다 서사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입부분은 ‘천추태후’가 역사적 기록에서 욕망에 눈이 먼 ‘권력의 화신, 욕망의 화신’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당대성을 무시한 평가라는 문제제기를 한다.<sup>5)</sup> 이어서 고려사 기록을 통하여 훗날 목종의 어머니이자 현애왕후였던 황보씨(천추태후) 가문의 내력을 소개한다. 황보씨는 왕건의 손녀이고, 왕건의 손자인 경종의 세 번째 부인이었다. 그리고 여동생 또한 경종의 네 번째 부인이었다. 당시에는 근친혼의 풍습이 있었으며 특히 왕족 사이에서는 더욱 철저히 지켜졌음을 사료로 제시하고 있다(기).

황보씨는 경종의 다섯 왕비 중 가장 먼저 아들을 낳았으나, 1년 만에 경종이 세상을 뜨고, 오빠 성종이 즉위하면서 아들과 헤어져 지내게 된다. 이때 외적인 김치양과 정을 통하게 되고 당시 유학을 받던 성종에 의해 김치양은 유배를 당한다. 그러나 대만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사신이 기록한 ‘고려도경’을 보면 고려의 문화는 매우 자유롭고 개방적이었고, 남녀 구분 없이 함께 목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와 같은 개방적 성풍속도는 당시 여성의 지위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여주이씨 세보에는 남편이 죽은 후 낙랑군부인 최씨가 호주로 기록되어 있으며, 왕족도 재혼이 가능하다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당시 천추태후의 통정이 일반적이었음을 확인한다(승).

이후 성종이 세상을 뜨고 천추태후의 어린 아들인 목종이 즉위하면서 천추태후의 섭정이 시작된다. 귀양 가 있던 김치양을 불러들여 세력을 확장하고 기존 중앙관료들과의 갈등관계를 형성한다. 천추태후는 태조 왕건의 뜻을 이어받아 서경중시정책을 펴고, 성종이 폐지했던 연등제와 팔관회를 부활시켰으며, 실리주의 외교를 펼쳤다(진).

그러나 유학세력과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유학자들에 의해 김치양과 친족들이 몰살되고 천추태후와 목종은 궁궐 밖으로 쫓겨난다. 목종은 자객에게 목숨을 잃고, 천추태후는 60세에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다. 마지막에 제작진은 천추태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유학자들이 지나치게 폄하하여 기록한 것으로 천추태후야말로 고려의 자주정신이자, 고려 최고의 여걸이라고 칭송하며 결말을 맺는다(결).

고려시대의 근친혼 관습과 같은 당대 풍속에 대한 소개가 삽입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기황후’와 마찬가지로 ‘천추태후’라는 여걸의 일대기를 영웅적 서사방식으로 제시한다. 18세 어린 나이에 남편이 죽고 궁궐 밖으로 쫓겨나는 ‘시련’을 겪은 후 일생의 ‘조력자’ 김치양을 만나고, 유학세력과의 갈등이라는 더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실리주의를 펴는 여성 정치인으로 성장해간다. 그러나 ‘기황후’와 달리 결말은 영웅의 귀환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비통한 어머니이다. 이야기는 주로 천추태후를 호출출신과 유학세력과의 갈등 사이에 배치하고, 김치양을 단순히 정을 통한 연인이 아니라 동향 출신의 정치적 동반자로 봄으로써 기존의 역사적 기록과는 다른 입장에서 해석을 시도한다.

<역사스페셜>과 <한국사傳>이 기존의 역사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두 여성인물에 대한 긍정적이며 대안적 역사해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이야기 방식은 전형적인 영웅적 서사구조였다. 주인공을 신화화함으로써 가부장제 하에서 권력을 가진 여인에게 부여하는 정형화된 마녀이미지 대신 시대를 이끌었던 영웅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

5) 교토박물관에 소장된 ‘대보적경변상도’에 기록된 ‘왕태후 황보씨(천추태후)와 김치양은 과연 누구인가의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다.

## (2) 인물의 탈개인화

유교적 관점에서 기록된 기존의 역사적 사료에서 부정적 여성으로 평가되어온 ‘기황후’와 ‘천추태후’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사스페셜>과 <한국사 傳>은 두 인물을 여성으로써 개인이 아닌 능력 있는 고려인으로써 정치적 인물로 일반화시킨다. 우선 기황후의 경우, 그녀의 개인적 명민함과 총명성을 몽골인에 비해 ‘수준 높은’ 당대 고려인의 특성으로 일반화시키면서, 기황후의 정치적 능력과 영향력을 인정한다. 또한 기황후의 정치적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와 대립되는 인물로 남성인물 ‘원순제’를 설정하고 있다. 기황후는 어려웠던 백성들을 위해 대규모 구호사업을 벌인 똑똑하고 강인한 고려인이었던 반면에 원순제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는 무력한 몽골인으로 묘사함으로써 기황후의 정치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sup>6)</sup>

---

### 기황후:원순제

대규모 구호사업:방탕한 생활  
고려인:몽골인  
강인함:무력함

---

여성으로서의 개인을 정치적인 인물로 전복시키는 것은 ‘천추태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국사 傳>은 불륜과 간통을 일삼는 ‘욕망에 눈이 먼 여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천추태후를 그녀의 정치적 소신과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고려 왕건의 뜻을 이어받고자 했던 민족사관이 투철했던 고려인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즉 여성 개인을 정치적 인물로 탈개인화시킴으로써 인물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천추태후를 정치적 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해 대립된 인물로 성종을 설정한다. 천추태후의 오빠였던 성종은 당시 유학을 숭상했고, 친송정책을 폈던 인물이다. <한국사 傳>은 성종을 명분주의를 중시했던 무분별한 사대주의자라고 보고, 이와 달리 천추태후는 친거란 정책의 실리주의 외교정책을 펴고, 왕건의 자주적 민족정신을 이어가고자 했던 인물로 재해석하고 있다. 도입부에서 김치양과 통정을 나눴던 여성으로 천추태후를 소개했으나, 이후 탁월한 정치적 능력을 가진 인물로 영웅화시키는 역사적 재해석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시도하였다.

---

### 천추태후:성종

자주적 민족정신:무분별한 사대주의  
호족파:유학과  
친거란:친송  
실리주의:명분주의

---

## 2) 담화 분석

### (1) 서술자 담론의 위계구조

<역사스페셜>과 <한국사 傳>의 이야기구조는 유사한 점이 많으나 담화방식에 있어서는 차이를

---

6) 예를 들어 ‘순제양위사건’을 두고 제작진은 ‘순제가 방탕한 생활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자 (기황후는 백성과 나라를 위해)아들 황태자에게 양위하도록 하려고 했다’고 정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보인다. 두 역사 다큐멘터리 모두 사회자와 내레이터를 서술자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서술자의 역할과 기능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역사스페셜>은 연기자인 남성 진행자가 스튜디오의 진행을 맡고, 영상에 대한 서술은 남성 내레이터가 주도한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의 증인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이용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에서 ‘진행자-내레이터-인터뷰이(interviewee)’라는 세 서술자의 역할은 뚜렷이 구분되어 있는 동시에 이들의 채택 순서는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방식으로 주도면밀하게 구성된다. 진행자는 스튜디오에서 시청자에게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료 및 영상 위에 음성을 씌는(voice over) 내레이터는 역사적 사실과 증거를 진술하는 단순 서술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역사전문가인 인터뷰이는 사료와 마찬가지로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적 역할을 한다. 세 서술 주체 중 가장 강력한 서술자는 스튜디오에서 시청자에게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이야기하는 진행자라고 할 수 있다.

동일 프로그램의 다른 에피소드인 ‘조선판 사랑과 영혼’에 대한 김훈순(2000)의 연구에서도 진행자가 근엄하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3인칭 시점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강력한 서술자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때 진행자가 담론적 우위를 점하도록 권위를 부여하는 특성은 첫째, 스튜디오에 있는 실제의 모습으로 시청자를 직시하며 직접 이야기(direct address)하기, 둘째, 전지적 화자의 역할, 셋째, 이야기 전개를 총괄 지휘하는 강력한 담론 생산자이자 서술주체로 이야기를 이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각 이야기 단락(sequence)을 이끌고 서사적 종결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진행자의 감정적이고 격양된 진행자의 목소리 톤은 시청자에게 서술자의 주관적인 의견으로서의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도록 하는 기능적 역할까지 부가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 傳>에서도 이러한 진행자의 강력한 담론위치는 유지되고 있다. <역사스페셜>과 마찬가지로 ‘진행자-내레이터-인터뷰이’가 주요 서술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진행자를 객관적 목소리 톤을 지닌 남성 아나운서 2인으로 하고 또 진행자를 역사적 자료와 재연 속에 제3자로서 참여시킴으로써 서술자의 역할에 외형적인 변화를 주었다.

<한국사 傳>의 두 진행자는 스튜디오와 영상을 넘나든다. 진행자가 스튜디오에서 전체 이야기의 단락을 이끄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기 위해 직접 도서관에 찾아가기도 하고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재연하는 드라마 속에 들어가 서술하기도 한다. 적극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참여방식을 취하면서 단순 서술자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담론의 직접적인 생산자로서 동참한다. 특히 진행자인 남성 아나운서 2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갑론을박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사 傳>의 진행자는 <역사 스페셜>의 전지적인 진행자보다는 타협적이며 시청자에게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lt;표 1&gt; &lt;역사스페셜&gt;과 &lt;한국사 傳&gt;의 서술자 비교

구분	<역사스페셜> 미스 고려 기황후, 대원제국을 장악하다	<한국사 傳> 고려 여걸 천추태후
진행자	1인 남성(연기자) : 호소력 있는 감정적 목소리 스튜디오에서만 등장	2인 남성(아나운서) : 타자화된 객관적 목소리 스튜디오, 기록, 재연 현장에 참여
내레이터	남성	여성(중성화된 목소리)

<역사스페셜>의 진행자는 스튜디오에서 실제의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전지적 시각에서 직접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사 傳>의 두 진행자는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하고 사료를 함께 검증하는 참여적 서술자 역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모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다큐멘터리의 진행자는 서술자 담론의 위계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며 역사적 해석의 의미를 고정(anchoring)하는 규정자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의미규정자인 서술자가 모두 남성이라는 점은 매우 상징적인데 두 다큐멘터리가 모두 남성시선을 담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서술자 유형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미를 고정함으로써 역사적 상상력을 제한하는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

## (2) 영상의 결핍과 과잉

역사적 사실을 영상으로 재현하는 작업은 증거자료가 제한적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어려움에 당면하게 마련이다. <역사스페셜>과 <한국사 傳>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스튜디오, 야외 영상, 기록물(CG포함), 인터뷰, 재연(영상 극화)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영상의 재현을 위해 스튜디오에서는 가상 그래픽을 함께 이용하고 있었으며, 야외 영상은 주로 사료가 있는 박물관, 도서관, 또는 유적지인 경우가 많았다. 역사적 사료에 대한 보충적 설명 방식으로는 전문가 인터뷰가 삽입되고 있었다. 그리고 부족한 영상을 보충하기 위해 재연 영상을 편집하여 넣고 있었다. 영상적 자료의 절대적 결핍으로 대부분 서술에 의존하는 특성이 두드러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한 재연이 넘쳐 사실(fact)을 은폐시킬 만큼 과잉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재연 화면의 경우 두 프로그램 간 표현 양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2&gt; &lt;역사스페셜&gt;과 &lt;한국사 傳&gt;의 영상 비교

구분	<역사스페셜> 미스 고려 기황후, 대원제국을 장악하다	<한국사 傳> 고려 여걸 천추태후
스튜디오	도입부 기황후 소개 등 7편	도입부 천추 태후 소개 등 4편
야외영상	기황후 관련 장소 및 박물관 등 30편	교토국립박물관, 고려시대 풍속도 등 9편
자료 (CG활용 포함)	자정원 기록, 공녀에 대한 기록 등 35편	천추태후를 평가한 기록과 고려 시대 풍속 관련 기록 등 30편
인터뷰	사학자 및 행주 기씨 종친 회장 등 29편	사학자 및 왕실 종친회 등 18편
재연	기황후를 상징하는 차 따르는 공녀 실루엣 등 10편	천추태후, 김치양, 성종 등이 출연한 극화 영상 35편

<역사스페셜>의 영상은 매우 빈약하며, 전반적으로 내레이션이 영상을 압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영상만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가 없는 빈약한 영상이 대부분이다. 주로 역사적 기록물을 CG로 가공하여 보여주거나 자료와 관련된 장소의 영상을 보여주는 데 의존하고 있다. 또한 기황후에 대한 부족한 영상적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공녀 차림의 실루엣 재연 장면이 삽입되고 있는데, 양적으로나 표현방식 상으로나 매우 소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한국사 傳>의 영상 표현방식은 좀 더 과감하다.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야외, 인터뷰, 재연을 영상표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부족한 영상을 메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극화된 재연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스페셜>의 담화방식과 차이를 둔다. 제한적인 역사적 사료의 양적·질적 문제를 개선하여 역사적 사건을 보다 풍부한 영상으로 재현하기 위하여 드라마 형식으로 극화된 재연 장면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극화된 영상의 대사까지 밖으로 표현되어 한 편의 사극을 보는 것과 같다. 여기에 드라마가 아닌 다큐멘터리라고 구분짓는 유일한 장치는 스튜디오에 있던 사회자가 재연 장면에 개입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상의 과잉’은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허구 사이의 균형 문제를 야기 한다.

또한 <한국사 傳>에서 천추태후라는 역사적 인물을 재평가하기 위해 고려의 시대상을 제시하고 천추태후의 정치적 능력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재연 영상을 통해 표현되는 천추태후의 모습은 진한 화장을 한 요염한 여인으로 김치양과 정을 통하기도 하며 아들 대신 섭정을 하기도 하고, 탁상에 앉아 군을 지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영상을 통한 천추태후의 이미지는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대한 전복적인 해석에 기여하기보다는 여전히 가부장제가 권력을 가진 여성에게 부여하는 왜곡된 부정적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상과 텍스트 사이에 균열이 발생한다.

### 3) TV의 대안적 역사쓰기의 가능성과 한계

유교에 바탕을 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권력을 탐하는 여성은 어디까지나 가부장적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위험한 주체일 뿐이다. 시대가 변하고 수많은 패러다임이 공존하고 또 투쟁이 있어 왔으나 현재 역시 여전히 가부장적 가치체계가 작동하는 사회이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대중매체인 TV는 이러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지배적인 역사 인식에 반하는 대안적 역사시각에서 두 여성을 재해석하려는 <역사스페셜>과 <한국사 傳>의 시도 또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앞서서 시도한 이야기구조와 담화방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두 다큐멘터리의 역사기술과 의미화작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 차원에서 두 다큐멘터리는 부정적으로 인식된 두 여성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역사적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역사를 다시 쓰는 과정에서 남성적인 영웅서사방식을 차용한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의 이야기를 기존의 남성적인 이야기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으로서 개인성은 사라지고 역사적인 공적 인물로 부각되면서 탈개인화된다. 물론 역사 속에서 개인을 정치적/공적 인물로 신화화하는 과정에서 남성도 마찬가지로 탈개인화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영웅서사방식의 차용이 여성에 대한 대안적 역사쓰기에 적절치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두 다큐멘터리에 의해 재현되는 기황후와 천추태후라는 두 인물의 일대기에는 여성의 이야기는 실종되고 대신 기존의 신화화된 남성의 역사에

편입됨으로써 진정한 여성인물에 대한 전복적인 해석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둘째, ‘기황후’와 ‘천추태후’라는 두 여성을 평가하는 시선은 여전히 기존의 가부장적인 남성시선(male gaze)을 답습하고 있어 새로운 역사쓰기에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부장제 하에서 권력을 가진 여성은 아름다운 외모와 성적 매력을 이용하여 권력을 쟁취하는 마녀의 이미지로 정형화된다. 이에 반해 두 역사 다큐멘터리는 ‘기황후’와 ‘천추태후’를 동시대 남성보다 우월한 정치적인 능력으로 권력을 획득한 인물로 재현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나라의 황제 원순제의 사랑을 획득하고 김치양과 통정을 할 만큼 그녀들이 매혹적이고 미모가 뛰어났다는 점을 부각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녀들의 미모는 당대의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데 필수적인 자격조건으로 전제하는 듯하다.

셋째, 남성적 영웅서사의 틀을 빌어 공적 인물(public figure)로 승화시켜 여성 인물사를 기술함에도 불구하고 모순적이게도 사적인 관계인 남녀 간의 애정관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에서 공적인 남성인물을 다룰 때 여성관계를 비롯하여 사생활을 언급하지 않는 반면에 공적인 여성인물인 경우 가족 등 사생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남성중심사회에서 공적인 영역으로의 여성 진출을 무력화시키는 관습화된 시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황후의 경우 ‘기황후-원순제-타나시리’라는 애정의 삼각관계에 주목하고, 천추태후는 ‘천추태후-김치양’의 불순한 애정관계에 주목함으로써 공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인물에 대한 역사쓰기의 시도가 사사로워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역사드라마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현상이다. 여성을 전면에 내세워 새로운 여성주의적 역사를 써냈다고 평가받는 <대장금>의 경우도 종반에 집중된 애정의 삼각관계가 여성의 공적 인물화를 반감시켰다는 분석을 볼 수 있다(김은진, 2004; 하효숙, 2004).

넷째, 담화분석 결과, 두 다큐멘터리의 진행자들은 서술모드에서 보이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서술자 담론의 위계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며 다큐멘터리가 제시하는 역사적 해석의 의미를 고정(anchoring)하는 규정자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술자 유형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의미를 고정함으로써 역사적 상상력과 해독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

다섯째, 두 다큐멘터리 모두 고려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영상으로 재현하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증거자료가 제한적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우선 영상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의미 규정자인 서술자의 구두적 역사기술과 해석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역사적 상상력과 해독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동시에 부족한 영상자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상력에 의해 극화된 재연장면을 도입하곤 한다. 그러나 다큐멘터리의 경우 영상재연에 의거해서 역사를 재현한다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역사적 상상력의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사 傳>의 천추태후의 외연을 담은 극화된 재연 장면에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방식은 담화가 오히려 가부장적 서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인물에 대한 전복적 해석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5. 맺는 말

오늘날 대중매체는 대중적인 역사지식을 생산하는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대량으로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역사인식의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구성원의 역사인식에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한다. 특히 역사를 전문으로 다루는 TV 다큐멘터리는 사회구성원의 분열된 역사적 기억을 통합하고 과거의 사건과 상황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다(윤태진, 2000; Hardt, 1995). 다시 말하면, TV 역사다큐멘터리는 역사지식의 중요한 원천이며 시청자에게 과거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TV가 제시하는 정의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부터,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건 및 사실”에 대하여 기존의 통사와는 다른 시각과 방식으로 역사를 다루겠다는 기획의도를 밝힌 KBS에서 방영되었던 TV 역사다큐멘터리 <역사스페셜>과 <한국사 傳>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역사쓰기 방식에 주목하여 TV의 역사쓰기가 대중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배적인 역사인식에 반하는 대안적인 역사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대중매체의 역사쓰기는 역사적 사실을 거울처럼 단순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배열에 의한 재구성을 통해 과거를 현재화시키는 재현작업이다. 그러므로 대중매체의 역사쓰기에서는 과거사실 그 자체의 진위보다는 과거 사실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재현방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훈순, 2000).

이 연구는 재현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스페셜>과 <한국사 傳>의 이야기구조와 담화방식을 분석하였다. 두 다큐멘터리는 역사 속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된 여성 ‘기항후’와 ‘친추태후’를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역사적 인물로 새롭게 재해석 해내고 있다. 그러나 유교적 가부장제 하에서 폄하된 역사적 여성인물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남성적 영웅서사구조를 차용함으로써 여성의 이야기를 남성의 방식으로 써가고 있다. ‘여성’을 박탈하고 대신 ‘남성’ 영역인 ‘정치성’을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인물로 신화화한 것이다. 다른 한편 정치적 인물이라는 공적인 영역에 대한 역사쓰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적영역인 남성과의 애정관계를 주목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정치적 여성인물로 평가될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여성의 미모를 강조하는 가부장적인 남성 시선을 답습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요컨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아오던 역사 속의 두 여성을 영웅적인 정치적 인물로 재창조하여 전복적인 이미지를 생산하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다큐멘터리에서 재현하는 이미지는 또 다시 기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추구하는 남성상(정치적인 인물)과 여성상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다큐멘터리의 여성에 대한 대안적 역사쓰기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두 다큐멘터리에서 발견되는 서술방식 역시 이러한 역사적 해석에 대한 의미를 고정시킴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다양한 해독을 할 수 있는 역사적 상상력이나 여지를 주지 못한다. 서술자 담론의 위계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스튜디오의 진행자는 역사적 담론생산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며 역사적 해석의 의미를 고정(anchoring)하는 규정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두 다큐멘터리의 영상표현 역시 텍스트에 대한 시청자의 해석을 제한시켜 역사적 의미를 고정시키는 역할에 일조하고 있다. <역사스페셜>은 영상적 사료의 절대적 결핍으로 대부분 의미규정자인 진행자의 서술에 의존하는 특성이 두드러지고, <한국사 傳>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한 사극형식의 재연에 의존하거나 이는 가부장적 서사를 고정시키고 다양한 해독이나 객관적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대안적 역사쓰기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두 다큐멘터리가 시도한 대안적 역사쓰기의 한계는 일정부분 텍스트 외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적 관습과 텔레비전이라는 대중매체의 속성 등이다. 남성중심의 역사가 곧 공적인 역사인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권에서 남성적 권력 행사의 핵심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다루는 역사다큐멘터리 장르는 남성적이고 권위적인 경향을 떨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동안 배제되거나 주변화 되었던 역사적 인물로서 여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재조명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터리의 역사쓰기의 한계는 남성인물을 다루는 관습화된 재현양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방송 산업조직과 제도 안에서 제작되는 역사다큐멘터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최대의 시청률을 높여야 하는 방송 제작 메커니즘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재선택이나 역사해석에서 비정치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을 떨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상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사료가 절대 부족한 고려시대의 여성인물을 다룸으로써 영상보다 구두 언어에 의한 해설에 의존하게 된 결과가 역사적 상상력과 다양한 대안적 해석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진화하는 하나의 장르로서 TV 역사다큐멘터리는 영상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우리가 이전에 확고한 ‘현실’이라고 인식했던 것과 재현 이미지와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다양한 표현양식의 출현으로 인해 객관적 사실의 전달보다는 주관적 구성과 예술적 표현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으며, 역사적 현실을 묘사하는 영상이미지의 과잉이 현실을 하나의 ‘구경거리(spectacle)’로 만들어 가는 경향이 있다(이종수, 2000). 영상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 다큐멘터리의 표현 양식의 변화에는 새로운 매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는 시청자의 수용성도 함께 작용한다(박인규, 2006; Fiske, 1987).

그럼에도 불구하고 TV가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를 통해 역사적 시공간을 재창조함에 있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성’일 것이다. 부족한 영상을 채우기 위해 제작진의 상상력에 서사와 영상을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텍스트와 영상의 적절한 균형을 통해 ‘사실’에 근거한 역사쓰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청자로 하여금 객관적 판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사적 현실의 재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둘러싼 담론들의 변화와 이것이 내재한 사회적 효과에 주목하는 원용진(1999)의 조언은 역사다큐멘터리의 제작과정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즉, 다큐멘터리의 신화화된 성격과 규범성을 최소화하여 수용자들로부터 다큐멘터리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Ⅰ 참고문헌

- 강승목 (2007). 지역 방송 프로그램의 영상 포맷과 서사구조에 관한 연구: 지역방송역사다큐멘터리의 역사성과 지역성의 재현방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1권 2호, 9~45.
- 김균·전규찬 (2003). 『다큐멘터리와 역사 한국 TV 다큐멘터리의 형성』. 서울: 도서출판 한울아카데미.
- 김은진 (2004). 한국 사극 속 여성성과 담론 분석: 대장금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제15집, 81~114.
- 김훈순 (2000). 영상매체의 역사쓰기 KBS 역사스페셜. 『프로그램/텍스트』, 제3호, 9~36.
- 김훈순·김미선 (2008). 여성담론 생산의 장으로써 텔레비전 드라마: 30대 미혼여성의 일과 사랑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권 1호, 244~270.
- 박인규 (2006). 다큐멘터리의 사실성과 장르 변형: 모큐멘터리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봄/여름호, 148~170.
- 박진우 (2009). 증언과 미디어: 집합기억의 형식에 대한 탐구. 한국언론학회 2009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 서현석 (2004). 진실의 끔찍한 무게: 마이클 무어와 다큐멘터리의 유동성.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397~423.
- 신명희 · 김창숙 (2006). 역사다큐멘터리 영상미학의 수용성 연구. 『언론과학연구』, 6권 3호, 300~341.
- 양정혜 (2002). 대중매체와 여성 정치인의 재현: 시사 월간지와 여성 월간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452~484.
- 원용진 (1999). 담론적 접근으로 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황인성(편), 『텔레비전 문화 연구』(135~168쪽). 서울: 한나래
- 윤태진 (2000). 텔레비전이 바라보는 한국의 현대사: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광주 민주 항쟁’ 재구성 방식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텍스트』, 제3호, 37~70.
- 이종수 (2000). 영상 다큐멘터리 역사재현의 현실성과 표현성: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텔레비전의 20세기 특집기획 다큐멘터리 비교분석. 『한국언론학보』, 44권 3호, 301~341.
- 정창현 (2006). 역사다큐멘터리는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나? ‘진술된 기억’과 ‘역사적 진실’의 충돌. 『프로그램/텍스트』, 제15호, 57~70.
- 정회경 · 강만석 · 김경환 (2008).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 현황과 유통시장 연구. 한국방송학회 2008년 가을정기 학술대회 발표문.
- 조한욱 (2000).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서울: 책세상.
- 주창운 (2006). 역사드라마의 ‘역사’기억하기 혹은 망각하기. 『프로그램/텍스트』, 제15호, 11~27.
- 하효숙 (2004). 역사, 젠더 그리고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미디어, 젠더 & 문화』, 제2호, 71~117.
- Carr, H. Edward (1990). *What is history?* Penguin Books.
- Caughie, J. (1981). Progressive Television and Documentary Drama. In Bennet, T.(ed.). *Popular Television, and Film*.(327~352). BFI Publishing.
- Chatman, S. (1978).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 역(2003).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이야기와 담화』. 서울: 푸른사상.
- Choi, S. (2009). The new history and the old present: archival images in PBS documentary Battle for Korea. *Media, Culture & Society*, vol.31(1), 59~77.
- Fisher, W. R. (1989). Clarifying the Narrative Paradigm. *Communication Monographs*, 56, 55~58.
- Hardt, H. (1995). Image/Practice/History: A Response, *Journal of Communication*, 45(2), 108~114.
- Nichols, B. (1988). The Voice of Documentary, in A. Rosenthal(ed.), *New Challenges for Documentary*, Berkeley &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 Nichols, B. (1991). *Presenting Reality*.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Patricia, A. (1982). The Frozen Moment: History and The Uses of Film, *Film & History*, 7(2), 35~43.
- Ricoeur, P. (1981). The Narrative Function. In J. B. Thompson(Eds.), *Paul Ricoeur: Hermeneutics and the Human Science*(145~16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lverstone, R. (1987). *Narrative Strategies in Television Science*. London: Methuen.
- Todorov, T. (1977). *The Politics of Prose*. Oxford: Blackwell
- Tuchmann, G., A. Kaplan Daniels & J. Benet (1978). *Hearth and Home: Images of Women in the Mass Med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Zelizer, B. (2004). ‘The Voice of the Visual in Memory’, In K. Phillips(ed.) *Framing Public Memory*(157~186).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ABSTRACT

## Historiography of TV Documentary

Hoon-Soon Kim\* · Suk Kim\*\*

This study analysed the narrative of <History Special> and <Korean History Biography>, two history documentary broadcasted on KBS, in terms of story-telling and discourse. And it also examined whether TV as mass media could provide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against the dominant historical awareness. As a result, both programmes showed limitations on representing subversive point of view to the dominant ideology. At the story-telling level, firstly, they represented in a way of male-hero narrative though they were describing the history of woman, and while representing woman as a public figure they eliminated her femininity and individuality. Secondly, before evaluating woman as a historic figure they previously appreciated her appearance in a male-point of view. Thirdly, although they were telling the story of woman in a political view, they focused on love triangle, therefore failed to make her as a public figure. The discourses of both programmes were anchoring the existing historical interpretation instead of offering an alternative historical imagination. The narrator who were telling history at the studio in a omniscient viewpoint took a role as a meaning definer, placed at the highest rank in the hierarchy of discourse structure. Especially in <Korean History Biography>, the dramatized images to cover lack of visual data helped anchor the patriarchal narrative and reduced the possibility of subversive interpretation on historic figure.

Keywords: Historiography, TV documentary, Alternative interpretation, Woman public figure

---

\* Professor Division of Media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